

포천시청 환경 공무원 비리연루 구속

신북환경 폐기물 불법매립사실 목인 혐의

포천시청 공무원과 사이버 기자, 마을주민들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한 환경업체의 폐기물 무단매립을 미끼로 돈을 받아 쟁긴 혐의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최세훈 검사)은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포천에 소재한 9천여평 넓이의 사업장에 암색공장 폐수 처리 후 남은 찌꺼기 4만6천톤을 불법매립하고 매립작업을 위해 사업장 주변 입자를 환폐시킨 신북환경 대표 최모(64세)씨와 이를 목인해준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계장 이모(44세)씨와 폐기물담당공무원 김모(37세)씨를 구속했다.

포천시청 환경보호과 이모계장은 신북환경 대표 최씨로부터 폐기물 불법매립사실을 목인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4차례에 걸쳐 모두 2천500만원을 받고 폐기물침출수로 야기된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두 차례 연장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시청 폐기물 담당 김모씨는 신북환경으로부터 9차례에 걸쳐 2천120만원을 받은 뒤 지난해 3월 주변 민원으로 사업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매립량을 대폭 축소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심지어 최씨에게 카드빚을 갚아달라며 3천500만원, 주택구입자금이 필요하다며 6천5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S환경신문 기자로 행세한 김모(61세)씨는 구속되고 A일보 포천시청 출입기자인 김모(49세)씨와 J환경신문사 사장 유모(56세)씨는 수시로 사업장을 돌며 신북환경 대표 최씨로부터 각각 280만원~690만원을 받아 쟁긴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

명예환경감사위원인 주민 김모(50세)씨와 이모(59세)씨는 환경감사단 마크가 찍힌 복장과 모자를 착용한 채 기자증, 환경감시원증 등 운갖 신분증을 들고 다니며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각 160만원과 80만원을 받아 쟁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또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반 이모(38세.경장)씨는 사건 알선을 위해 검찰내사 정보를 몰래 빼내 포천시청 이모 계장에게 수사상황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불구속됐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포천시청 다른 공무원 2명은 우연히 얻은 바위 2개를 신북환경 회사현관용으로 사용하라며 150만원에 강매하고 부하직원의 아버지가 재배한 포도 70상자를 140만원에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우선돼야”

유암초에서 ‘~사업추진상황 발표회’ 열려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소규모 학교지원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 7일 유암초등학교에서 개최된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추진상황 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으로 이밖에 학교별 핵심 프로그램의 특성화 유도, 지원교를 중심으로 인근 학교간 시설, 교육프로그램 공동 활동 유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지금까지 사업의 성과로는 △

학교 발전 여건 조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비 경감 △지역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 증가 △교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학생수 증가 등이,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속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원액 부족 △지원 제외교의 상대적 소외감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 △통학버스 임대 운영의 문제 등이 발표됐다.

소규모학교지원사업은 지난해 9월 대상학교를 선정해 11월부터 본격 추진됐으며 포천지역에서는 유암초교(교장 김흥렬)와

화현초교(김태곤)가 선정돼 현재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들 학교에는 특기·적성 교육활동 지원, 통학버스 임차료, 시설확충 등의 사업에 교당 6억 7천여만원이 지원되는데 학생 1인당 평균 440만원 정도가 투자되는 셈이다.

이들 학교의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유암초교는 다목적 학습관 신축 및 시설 확충에 44%, 원어민 채용 영여·중국어 교육에 10%, 화현초교는 다목적 학습관 신축 및 시설 확충에 40%, 미술·골프·멘토강사료 등 특기적성 교육 운영비에 15% 등의 예산투자 계획을 갖고 있거나 투자되고 있다.

한편, 사업 시행 학교 학부모 300여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이 학교발전에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답변이 94%에 달해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사업 시행 후 변화 체감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변화했다”가 88%, 사업 후 학교에 대한 만족도 변화는 “긍정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86%로 나타났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카네이션처럼 환하게 웃으세요”

포천의제21, 어버이 꽃달아드리기 행사



포천의제21실천협의회는 지난 7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소외된 채 복지시설에서 말년을 보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버이 꽃달아드리기’ 행사를 펼

쳤다.

회원들은 오전 의제사무국에서 카네이션 꽃 100여개를 직접 만들어 관내 노인복지시설인 목련의 집, 가나안의 집, 효사랑의 집 등 세 곳을 방문해 꽃을 달아드리고 선봉기, 양말, 빵 등을 증정했다.

포천의제21 윤순옥 협의회장은 “우리 지역 내 독거노인들에게 작지만 정성을 다해 만든 꽃을 달아드리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병길 기자 jpk61@hanmail.net

지역경제활성화 관광특화 토론회

47번 국도 중심 관광마케팅 방안 도출

포천시는 오는 11일 오후4시 화현면 주민자치센터 2층 대강당에서 47번 국도중심 지역경제활성화 관광특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차 전략회의에서 발의됐던 계획(안)에 대한 세부시행 전략을 수립해 각계각층의 인사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함으로써 여론수렴과 보완을 통해 2004~2005년 핵심전략사업으로 선정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자로는 박운중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20명과 홍성훈 의장, 최대중 부의장, 김영오, 이종호, 이강립 의원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등 상임위원장 3명, 김영대, 최병덕의원을 비롯한 포천시의회의원 7명, 포천시 정책위원인 허훈, 김대동, 안준수, 김경복, 정현숙, 류선우 교수등 6명, 배상면주사가 배영호 대표이사, 베어스타운 민석홍 대표이사, 김희태 축구교실, 백운계곡 송영현 관광지부장, 추연형 청계저수지발전위원장, 화현·내촌·일동·이동면 개발자문위원장 및 총무, 이장협의회장 및 총무 등 민간 21명, 포천신문 등 언론인 6명등 모두 6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el.net

진취적 기상을 품고



추산초교 아람단(단장 김한결) 일단 선서식이 지난달 30일 추산초교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3학년 서한을 학생 등 신입회원 35명의 임명장 수여와 입단선서, 환영사와 추산초교 아람단 어머니회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아람단은 한국청소년연맹 소속의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단체로 자율, 책임, 창조, 협동 등을 실천덕목으로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을 목표로 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이 함께 합니다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영동 1호 세트

100g×36人分 3.6kg

☆영동 2호 세트

100g×24人分 2.4kg

< 생산품목 >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취·숙국수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

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습니다

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代表 文宰吉

주 소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 화 : 031-535-5773 // 팩 스 : 031-534-1313
 E-mail : www.youngdong93@hanmail.net